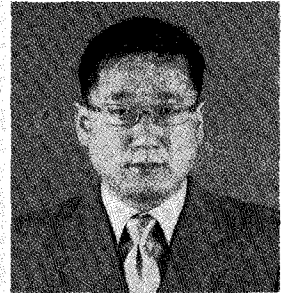


방역의 가장 큰 적,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민 권 식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북도본부 지도과장



HPAI의 종식 선언을 조심스럽게 기다리면서 지낸 날도 이미 4개월을 훌쩍 넘어섰다. 필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 충북도본부의 지도과장으로 충북 음성에 처음으로 HPAI가 발생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시퇴치를 위해 하루도 마음을 놓지 않고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일원중의 한 사람이다.

본론에 앞서 우선 방역본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99년에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로 시작하여 2000년 구제역을 겪은후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바뀌면서 국내 유일의 민간 자율방역단체로 발전하였으며, 2003년 6월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명시된 농림부 산하 특수법인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서울에 방역본부 사무국이 있으며 8개 도본부와 38개 출장소에 175명의 방역사를 위하여 30여명의 임직원들이

이들의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충북도본부는 3개출장소에 12개시군 13명의 방역사와 4명의 도본부 직원들이 표1에 나타난 가축주요 질병 발생시 확산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에 적극 임하고 있다.

표1. 충청북도 주요질병 발생상황

일 시	지 역	내 용
2000년 4월	파주, 충주	소 구제역
2000년 말	진천, 괴산	돼지오제스키
2002년 4월	제천	돼지오제스키
2002년 5월	진천	돼지 구제역
2002년 말~	전국	돼지콜레라(충북제외)
2003년 12월	음성, 진천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2004년 1월	영동	돼지콜레라
2004년 2월	충주	뉴캐슬병(육계)

가족과 연락도 못하고 현장 투입

지난해 12월 11일 음성군 양계담당방역사로 부터 “의사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이라는 보고를 받았고 당시 필자는 다리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으며, 또 가금인플루엔자(AI)는 가금에 있는 일이어서 그리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저녁 TV를 보니 상상외로 언론에 보도되어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PAI, 일명 조류독감)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홍콩의 조류독감발생으로 전세계가 떠들썩한 이때 하필이면 국내에서도 발생하여 언론의 톱기사거리를 연일 장식하고 있었고, 방역지원본부에서는 발생당일부터 음성군 방역사와 양계담당 방역사 2명을 현지에 급파하여 이동통제 등 병성감정 지원활동에 나섰으며, 다음날부터는 살처분·매몰에 인력을 투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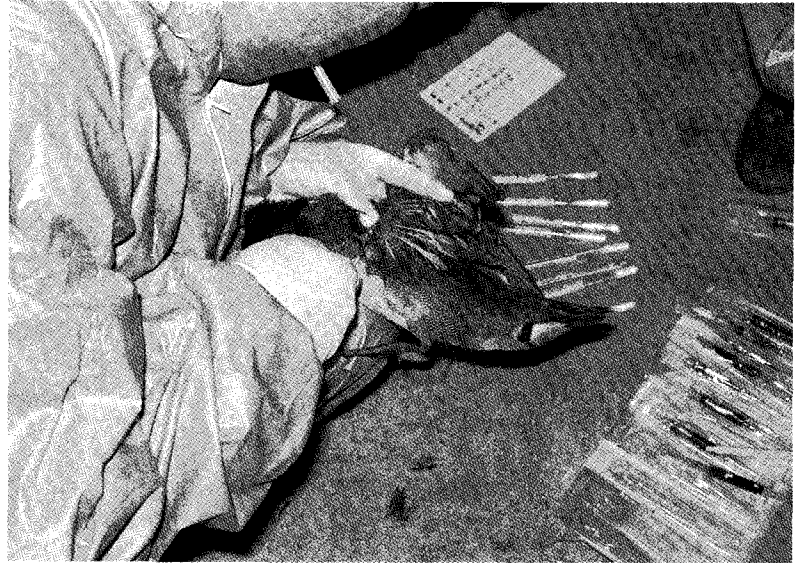
12월 13일부터는 중부출장소 방역사 5명이 삼성면에 숙소를 정하고 현장지원에 동원되었다. 발생지역(500m이내, 1호), 위험지역(3km이내, 12호), 경계지역(10km이내, 54호) 등으로 방역대가 형성되었고, 이들 지역에 대한 단계적인 이동통제가 실시되었다.

경계지역 밖의 음성군지역과 진천군 충주시 등 인접시군에서 의심축 신고와 역학관련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들지역에 대한 채혈·예찰 등 방역활동은 남부출장소(3명)과 북부출장소(3명)의 방역사가 맡게 되었다. 도본부 모든 방역사는 동원령에 의해 12월 31일까지 동원되었고, 타지역으로의 전파를 막기 위해 합숙하였으며, 방역사들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이동통제명령 또한 시달되었다. 준비되지 않은 긴급동원이었기에 속옷 등은 모두 새로 구입하였고 심지어 핸드폰 충전기도 챙기지 못하여 가족과의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였다. 최초발생 1

표2. 충청북도 HPAI발생 현황

구분	신고일	주소	축종	사육규모	임상증상 및 역학	비고
1	12.10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70-1	종계	26,000수	급격한 폐사, 신고시 50% 폐사, 역학조사중	고병원성 (12.15)
2	12.14	음성군 삼성면 천평리 472	종오리	3,480수	폐사 3수, 산란저하, 양호열 농가와 같은 부화장	고병원성 (12.19)
3	12.16	음성군 삼성면 상곡1리	산란계	15,000수	폐사 70여수, 폐사수 증가, 삼주산업 퇴비장 이용	고병원성 (12.19)
4	12.18	음성군 대소면삼정리 764-1	종오리	8,000여수	활력저하, 사료섭취 감소, 이점농 농가 인접	고병원성 (12.24)
5	12.18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산4	종오리 육용	7,700여수	사료섭취 감소, 산란율저하 김학면 농가 오리분양	고병원성 (12.24)
6	12.18	진천군 진천읍 문봉리	종오리	5천수	종오리농장 일제조사, 2차발생 김학면 농가와 같은 부화장사용	고병원성 (12.21)
전국계 (19건)		오리 9건(종오리8, 육용1), 닭 10건(종계1, 육용2, 산란계7) 음성5, 진천1, 이천1, 천안5, 나주1, 경주2, 울주1, 양산1, 아산1, 양주1				

주일뒤 삼성면(3농가)에서 대소면(2농가)으로 전파되었고 충남 직산에서도 발병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02년말에 발생하여 '03년 초까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렸던 돼지콜레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 불안해 지기 시작하였다.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이 시작되었고,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국 종오리 농



야생오리 채혈장면

표3. 충청북도 HPAI 관련 채혈 및 분변채취

년	월	일	호 수	채혈(수)	분변(수)	인원	구 분
03	12	15	3	140	120	3	역학
		17	2	100	100	1	출하
		19	26	740	730	8	종오리
		22	7	200	200	6	역학
		23	4	80	80	3	역학
		24	12	240	230	7	종오리
		29	3	60	60	3	역학
		30	19	380	370	8	역학
		31	1	20	20	1	역학
04	1	4	4	787	780	10	종오리
		5	5	100	100	4	역학
		8	3	60	60	2	출하
		13	3	60	60	2	출하
		14	4	80	80	3	역학
		16	1	25	25	1	출하
		17	1	20	20	1	출하
		21	1	15	15	1	농가요청
	2	12	2	25	25	2	농가요청
		14	1	20	20	2	농가요청
19회			102농가	3,152수	3,095수	68명	

장에 대해 일제 채혈을 실시하였다.

표2와 같이 12월 18일 진천군 발생을 마지막으로 12월 31일까지 충북에는 더 이상의 확산이 없기에 필수인원 2명을 제외하고 방역사를 모두 철수시켰으며, 일정기간 농장방문 및 축산농가와의 접촉을 금하고 전화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를 내렸으며, 비상대기 체제를 구축하였다. '04년 새해 첫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4일날 모든 방역사를 동원하여 종오리농장 3차 채혈을 실시하였으니, 이글을 빌어 휴일에도 불구하고 방역사를 동원하게되어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04년 2월말까지 충청도본부에서는 표3과 같이 102농가 3,152수의 채혈 등의 방역활동을 실시하였으며, 1월 27일부터 4월 15일

표4. 충청북도 HPAI관련 살처분 현황

시 군	계	산란계	육 계	총 계	오리	비 고
음성군	644,273	147,132	25,000	30,800	441,341	53호
진천군	48,200	-	-	-	48,200	7호
합 계	692,473					

까지 총 6,805호의 가금류 전화(방문)예찰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산란계 4,115호, 육계 1,516호, 오리1,174호등으로의 세분될 수 있다. 또한 역학적 전파원인을 찾기위해 야생오리 포획을 위한 범씨살포와 포획후 채혈에 2월말까지 참여하였다.

금번의 HPAI로 전국적으로 살처분 보상비, 생계지원비, 인력동원, 소독약품, 방역기자재 등 소모품비 그 외 시간적 정신적인 낭비 등을 돈으로 환산하면 그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게 클 것임은 자명하다. 또한 진천의 종오리농장주와 치킨집 사장님이 경제난과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다는 가슴아픈 소식은 우리의 방역활동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고 뒤를 돌아보게 한다.

축산농가들의 방역 인식 전환 필요

2002년 구제역에 이어 2003년 고병원 가금인플루엔자를 겪으면서 축산농가 및 방역당국과 일반국민들이 좀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다면 상황이 더 좋아지지는 않았을까 하여 몇 가지 적어보려 한다.

첫째로 발병초기에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 때문에 군인, 전의경, 경찰, 공무원 등 통제를 담당해야될 인력의 안전성 때문에 투입이 늦어진 이유로 발생농장의 출입통제 및 방역대별 이동제한 등의 수칙이 철저히 이행되지 못 하였다고 본다. 그러기에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이 가능하였으며, 이들에 의한 무차별한 장면까지도 언론에 노출되어 일반국민들의 닭고기 등에 대한 거부감까지 발생하게

되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

둘째로 방역당국은 문제발생시 숨기기보다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와 자료로 대국민 홍보 및 지도에 앞서야 할 것이다. 방역당국이 망설이고 사실확인을 기피하는 사이에 여러 언론사들과 학자들의 부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확대, 과장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다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축산농가들의 의식전환이다. 남의 농장은 발생해도 내 농장은 아닐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질병을 내농장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우리농장에 출입하는 사료차, 닭장차, 계란차량과 사람은 방역상 출입통제하고, 소독후 출입을 시키고 있으나 막상 나와 내 가족에게는 관대한 것이 사실이다. 시군에서 주최하는 방역회의, 양계협회 등 축산단체 모임, 사료·약품회사 등의 세미나에 다녀오면서 소독후 농장을 들어가는 농장주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 자녀가 학교에 다녀와 집으로 들어올 때 소독하라고 시키는 아버지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 내 자녀는 발생농장의 자녀와 아무런 생각없이 같이 뛰어 놀고 공부하다 왔을 것인데 아무도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저 귀엽고 예쁜 내 자녀가 하루종일 학교에서 시달린 것을 가여워 할 뿐, 또 아내와 어머니가 발생농장 인접의 시장을 다녀올 때 시장짜온 찬거리를 일일이 챙기며 방역조치후 내 집안에 들여놓은 자상한 사장님이 얼마나 있을까? 그저 다른 출입자만 적으로 간주하여 관리할 뿐이다. 나와 내 가족은 아군일 뿐이라는 가장 큰 착각에 빠진다. 우리 가족은 나와 내 가족이 가장 큰 적일 수도 있는데.

끝으로 질병 발생시 현장과 상황실의 긴밀한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장의 진행사항과 문제점들이 실시간대로 상황실에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저 농장내의 가정용 일반유선전화나 공무원들의 핸드폰에 의존할 뿐이다. 요즘은 전화국에 연락만 하면 논밭 한가운데도 전봇대만 있으면 임시 전화를 가설해주는데, 또 모든 시군청과 읍면사무소에는 산불 방지용 비상무전기가 있는데 이것들은 항상 자리만 지키고 있다. 산불시에 지정된 관리자만이 사용 할 수 있다고 하니, 그것은 나라의 재산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불치병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앞장서다

이상 필자의 짧은 소견이었다. 하지만 충북

의 경우 2000년 충주 구제역 발생시 168억원, 2002년 진천 구제역 발생시 114억원, 2003년 음성 HPAI발생으로 180억원이 살처분·매몰 보상비로 지출되었으며, 그 외 경제적·정신적 손실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재난적인 가축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방역당국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역대책과 농장주 스스로의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불변의 진리를 깊이 새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산농가를 위해 노력하였던 괴산군 방역사 최우영씨가 급성골수성백혈병이라는 불치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축산농가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격려를 당부 드린다. **양기**

생석회 ♠ 소석회

- ♣ 산성폐수 및 오수정화
- ♣ 축사소독 및 악취제거
- ♣ 총란 및 병원균 살균
- ♣ 유기질 분해촉진
- ♣ 산성 토양 개량(pH안정)

영월석회공업사

사무실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250번지
 전 화 : (033)372-5837, 5618, 팩스 : (033)372-5889
 전 화 : (033)372-5296, 6878, 야간 : (033)372-5293